죄 용서받는 은혜, 죄 없이 사는 은혜

(로마서 6:1~11)

1.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3.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죄 용서받는 은혜, 죄 없이 사는 은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죄 용서받는 은혜, 죄 없이 사는 은혜"
아담의 나라에서 살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나라로 옮겨갑니다.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아담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을 내가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의와 생명이 지배하는 예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살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은혜 안에서의 삶은 쉽게 말해 공짜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 예수님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의 재료가 은혜임을 깊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연쇄과정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연쇄과정 속의 예수님이 십자가와 무덤을 통과하여 부활에 이르셨으며 또한 부활의 자리에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이르러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랑 속에 하나 되셔서 기쁨 가운데 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다 따라갈 수 없다면 은혜의 완성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히 중시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연쇄과정 속의 예수님을 십자가까지만 따라가는 경우에 대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에서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까지만 따라가게 되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는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해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죄에 거하는 상태가 지속될 뿐만 아니라 이윽고 만연하게 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선 5장 20절에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본문 1절은 이 구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칠 수 있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많은 죄를 짓거나 죄 속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연쇄과정 속의 십자가까지만 따르는 사람들은 “죄 속에 머물러 있어야 죄를 용서받는 은혜의 크기가 점점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설령 이렇게 말하지는 않더라도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 속에 거하고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절은 율법이 죄를 더 많이 범하도록 충동하고 자극하여 부추긴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시간에 아담의 나라에 살 때는 오중단절의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아담의 나라에서 살며 오중단절의 삶을 죄인 줄 모르고 자연스럽게 여깁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주어진 율법은 자연스럽게 생각하던 삶의 모습이 전부 죄에 해당됨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곧 죄적 체질과 삶의 모습이 철저하게 죄에 찌들어있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십자가 복음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가 더 커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십자가 복음의 은혜가 고갈되고 말라버렸다면 내 존재가 얼마나 깊은 죄적 체질로 이루어져 있는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적 체질에 대한 깨달음이 지속적이고 깊을수록 십자가 복음의 은혜 또한 지속적이고 깊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신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의 죄적 체질에 대한 깨달음이 그만큼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깊은 깨달음으로부터 십자가 생활화라는 구체적인 모범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로부터 시작하여 고린도전후서와 갈라디아서 등으로 이어지

는 서신들은 모두 죄적 깨달음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깊은 죄적 깨달음으로부터 십자가 복음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도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는 구절은 죄적인 행위를 함으로써 은혜를 넘치게 받을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죄적 체질에 대한 깨달음이 깊고 크고 지속적일수록 십자가 복음이 주는 은혜 또한 깊고 크고 지속적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그리스도 연쇄과정 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을 믿되 십자가 단계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십자가 단계에서 믿음이 멈추면 은혜는 죄 사함에서 멈추게 됩니다. 은혜는 죄 용서받는 단계로부터 죄 없이 사는 은혜의 단계로 나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단계에서 믿음이 멈추고 부활의 단계로 나갈 수 없다면 죄 없이 사는 은혜의 단계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은혜의 단계로까지 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삶이 가능한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죄 없이 사는 단계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 속에 거하면서 용서만을 은혜로 알고 삽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 없이 사는 은혜의 단계가 더 어렵기 때문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은혜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죄 속에 살면서 용서의 은혜만을 알고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죄 속에서 살면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현실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습니다. 아버지를 잃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잃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나의 인생을 잃습니다. 매순간 아버지가 나를 향해 갖고 계신 보배로운 생각들을 잃습니다. 이러한 상실을 내 힘으로 메꿔야 하므로 죄 속에서 사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죄 용서받는 은혜만 받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렵습니다. 천국을 잃지 않고,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을 잃지 않고, 창조주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내 인생을 잃지 않고, 매 순간 아버지의 생각들을 잃지 않으면 저절로 살아집니다. 이러한 삶을 모두 잃고 내 힘으로 다 메꿔야 되는 삶을 살면서 죄 용서받는 은혜만을 붙잡는 삶은 마치 돼지가 목욕하고 돼지우리에 다시 눕는 모습과 같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이고 참담한 삶을 살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 연쇄과정 속의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5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연합하였다면 죄를 지으려 해도 지을 수가 없고, 죄 속에 머물려 해도 머물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죄 없이 사는 은혜가 큰데도 왜 부활의 단계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자 하지 않는 것일까요? 부활의 단계는 세상에 대해 죽고 세상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을 빠져나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면 인격의 의식과 마음이 할 수 있는 일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구하는 것뿐입니다. 이것을 싫어하기에 예수님을 부활의 단계까지는 따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기에 세상을 빠져나와 하늘만을 소원하는 부활의 단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상태에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떠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제까지 죄 속에 거하고 있던 죗값을 주님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 바깥에서 이루어진 부활의 단계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건성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세상을 빠져나가 부활의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4절을 보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새 생명은 죄 없이 사는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는 은혜의 단계에서 나아가 죄 없이 사는 은혜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단계에 이르렀다면 더는 죄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거나 죄의 상태를 억누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따라가서 부활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죄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부활의 단계의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더하기 위해 죄 가운데 있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부활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모든 사람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은혜의 경험자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다. 목욕한 돼지가 다시 돼지우리에 드러눕는 것과 같은 상황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되짚어 보기로 하겠습니

다. 우리는 이제까지 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해왔기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 아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본문과 연관해서 다시 한번 죄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무엇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은 부활의 자리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부활의 자리는 세상과 결별한 상태입니다. 세상과 결별했기에 세상을 좋아하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죄란 창조주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떠났다면 세상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것이며, 그리스도 연쇄과정 속의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상태에 대한 증거입니다.

죄를 의식과 마음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죄는 피조물인 세상 것의 있음을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있음보다 먼저 의식하는 상태입니다. 그 결과 피조물인 세상 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게 됩니다. 의로움, 즉 죄 없이 사는 상태는 이와 반대입니다. 의로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있음을 피조물인 세상의 있음보다 먼저 의식하는 상태입니다. 창조주를 피조물보다 먼저 의식함이 얼마나 지당하고 당연한지는 논리적으로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죄는 피조물인 이 세상 것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더 먼저 있다고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 의식을 따라서 마음도 창조주이신 하나님보다 피조물인 세상 것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평생 할 일은 죄적인 체질과의 싸움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있음보다 하나님에 의해서 피조된 것들의 있음을 먼저 의식하는 죄적인 체질과 싸워나가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는 해야 하는 다른 일은 없습니다. 싸우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그 죽음이 나의 죽음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죽음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치 병을 고칠 수 있는 신약이 개발되었으나 약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속에서 이루어진 나의 죽음을 간구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나의 죽음을 이루셨음을 믿고 그 죽음이 나의 죄적 체질의 활성화에 적용되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스스로 나를 죽이는 것은 자살이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죽음을 지금 나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6~7절을 보면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라고 하였습니다. “죄의 몸”과 “의의 몸”이 따로 있다는 것일까요? “의의 몸”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죄의 몸입니다. 죄의 몸이란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좋음을 소원하는 마음이 몸과 일체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곧 의식과 마음이 몸에 매여 있는 상태이고 악한 삼위일체를 이룬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몸으로 세상을 만납니다. 그리고 있음을 느끼는 의식은 창조주 하나님의 있음보다 몸으로 만나는 세상의 있음을 먼저 느낍니다. 오감으로는 하나님이 포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마음은 창조주 하나님보다 몸으로 만나는 세상 것들 중에서 좋아하는 것을 붙잡고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죄의 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은 죄적인 나입니다. 나의 몸 자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있음을 느끼는 의식과 좋음을 소원하는 마음이 몸과 삼위일체가 된 상태가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도 여전히 몸은 이 세상에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의식과 마음은 몸과 결별하고 예수님을 따라 세상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 바깥으로 나간 부활의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산다는 것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있음을 피조물인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먼저 의식하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하여 세상 바깥으로 나간 상태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면 의식과 마음은 몸과 삼위일체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몸이 오감을 통해 접하는 세상을 의식이 느끼고 마음이 소원하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있음보다 세상의 있음을 느끼고, 창조주 하나님의 좋음보다 세상의 좋음을 소원하게 됩니다.

십자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무덤을 통해 세상 바깥으로 나가신 부활의 예수님도 믿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죄의 몸”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의 실제 내용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의식과 마음이 몸과 삼위일체를 이루는 상태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식과 마음은 내 몸이 아닌 예수님의 몸을 따라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기에 예수님과 붙어있는 의식과 마음은 하늘로 가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

다"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의식과 마음이 몸에 붙어있을 때는 몸이 만나는 세상 것들을 있음과 좋음의 대상으로 붙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께 붙게 되면 더는 세상 것들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의 의식과 마음은 예수님이 마주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식과 마음은 예수님의 몸과 일체가 되어야만 합니다. 이 상태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의 몸이 미국을 가면 의식과 마음도 미국으로 따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몸이 오감으로 포착하는 상황에 대해 의식과 마음은 반응합니다. 미국에 갔던 몸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당연히 의식과 마음도 한국으로 옵니다. 의식과 마음이 몸과 일체가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식과 마음이 몸을 따라가는 것은 정해진 규칙이나 법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아담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도 의식과 마음은 얼마든지 몸이 있는 현장을 떠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상들이 다른 장소에 있다고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자녀를 외국에 유학 보낸 부모님의 의식과 마음은 항상 자녀가 있는 외국을 향해있습니다. 사랑하는 애인이 외국으로 출장을 가면 의식과 마음은 나의 몸이 아닌 애인의 몸을 따라 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의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을 따라 하늘까지 갈 수 있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의식과 마음이 자녀를 따라가는 이유는 자녀를 믿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좋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애인을 따라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애인을 따라가야 좋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예수님을 따라가야 좋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감이 십자가에서 멈춘다면 세상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빠져나가지 못하면 목욕한 돼지가 다시 돼지우리에 눕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기독교 종교인으로 살 때는 죄 없이 사는 은혜의 단계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스도 연쇄과정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몸과 의식과 마음의 악한 삼위일체의 상태는 죽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곧 "죄의 몸"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자리에서 몸은 세상에 놓아둔 채 의식과 마음은 예수님의 몸과 연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몸과 연합해서 죽고, 부활의 자리에서 예수

님의 몸과 연합해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몸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의 몸과 일체가 된 상태가 유지되면 절대로 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의식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있음을 피조물인 세상 것들의 있음을 먼저 느끼고, 마음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좋음보다 피조물인 세상 것들의 좋음을 소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식과 마음이 예수님과 일체가 되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으로 계속해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부모의 의식과 마음이 유학 간 자녀를 따라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몸과 일체가 되어서 따라가면 세상을 떠나 하늘로 가서 하나님만을 마주하게 됩니다. 세상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의식할 수 없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있음을 의식하고 하나님만을 좋아하는 가운데 이 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다음 단락에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받는 기가 막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죄 용서받는 은혜”의 단계를 넘어서 “죄 없이 사는 은혜”의 단계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내 몸과 일체 되었던 의식과 마음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깨어지고 이제는 주님의 몸과 일체 됨으로써 무덤을 통과하여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을 향해 사는 “죄 용서받는 은혜”의 단계를 넘어 “죄 없이 사는 은혜”의 단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